

# 저출생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2023. 7. 6. 목 오후 2:00

신영주교회 중예배실(4F) 영주시 원당로 30

- 주최\_ 영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원곤 목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철, 이순창, 권순용, 김태영, 장종현, 오정현 | 본부장 감경철)
- 후원\_ CTS기독교TV(CTS 안동방송), 영주시
- 문의\_ 02-6333-2502 | 010-3363-9359 (총무 정병주 장로) | [happyborn.kr](http://happyborn.kr)







#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2023.7.6. 목 오후 2:00

신영주교회 중예배실(4층) 영주시 원당로 30

- 주최\_ 영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원근 목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철, 이순창, 권순용, 김태영, 장종현, 오정현 | 본부장 감경철)
- 후원\_ CTS기독교TV(CTS 안동방송), 영주시
- 문의\_ 02-6333-2502 | 010-3363-9359 (총무 정병주 장로)  
happyborn.kr



본 자료집은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영주시편) 행사 자료집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자료집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 프로그램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14:00 **1부 세미나** 사회 정병주 총무 (영주시기독교연합회)

[개회사] 감경철 본부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기독교TV 회장)

[환영사] 김원곤 목사 (영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신영주교회)

[격려사] 김창진 위원장 (영주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영주동산교회)

[축사] 박남서 영주시장

[광고] 변창배 운영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기독교TV 부사장)

**2부 세미나** 사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14:20 [발표①]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역임)

14:40 [발표②] 지역사회 돌봄 현안 및 지역교회 역할  
옥경원 대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15:00 [발표③] 저출생 시대 지역사회 교회의 아동돌봄 역할  
정예용 과장 (CTS다음세대운동본부)

Q & A 토크쇼



#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 CONTENTS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 1부 개회

사회 정병주 총무 ( 영주시기독교연합회 )

09 [개회사] 감경철 본부장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기독교TV 회장 )

11 [환영사] 김원곤 목사 ( 영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신영주교회 )

13 [격려사] 김창진 위원장 ( 영주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영주동산교회 )

15 [축사] 박남서 영주시장

### 2부 세미나

사회 장헌일 원장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

19 [발표①]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안광현 교수 ( 유원대학교,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역임 )

29 [발표②] 지역사회 돌봄 현안 및 지역교회 역할  
옥경원 대표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39 [발표③] 저출생 시대 지역사회 교회의 아동돌봄 역할  
정예용 과장 ( CTS다음세대운동본부 )

Q & A 토크쇼





#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개회사

—

환영사

—

격려사

—

축사



# 01



## 개회사



**감경철** 본부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기독교TV회장)

안녕하십니까. CTS기독교TV의 감경철 회장입니다.

녹음이 짙은 7월에, 전통의 도시 영주에서 영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돌봄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함께 하신 영주시 기독교연합회와 김원곤 회장님과 영주시를 섬기고 계신 박남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 영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넓고 포근한 소백산 자락에 선비의 고고한 기풍을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곳의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 자원이 주변의 절경과 함께 펼쳐져 아름답고, 비옥한 토지에는 인삼과 과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117년 역사의 지곡교회를 비롯하여 백 년 역사를 기록한 교회가 세 곳이나 있고 많은 기독교 인물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영주 시민들은 토박이로서 생애를 고향 땅과 함께 해 왔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지역민들의 애정이 깊은 지역, 영주시는 존속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나이 들어가는데 태어나는 아기가 급감했습니다. 현재 영주시는 10만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30%로 올해 초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 소멸 지수 0.245를 기록했습니다. 영주시는 0.2 미만으로 떨어지는 고위험 지역을 겨우 면했지만, 이미 소멸 위험상태입니다.

지역 소멸은 지방 균형 발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펴서 지역발전을 기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그와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고등학교가 폐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생 시대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영주시가 사라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주시를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주시의 가임기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청년들이 영주시로 찾아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돌봄’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하시는 토론자님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구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주시가 결단코 사라져서는 안 될 지역이라는데 동의하신다면 오늘 토론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출생과 지방 소멸의 시대에 맞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포럼’이 영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김원곤** 목사  
(영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신영주교회)

저출생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주시기독교연합회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며 CTS기독교TV와 영주시에서 후원하는 지역사회 돌봄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방도시가 소멸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이렇게 돌봄 포럼을 개최하게 하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감경철 본부장님과 총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포럼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박남서 영주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안광현 교수님과 옥경원 대표님, 정예용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 도시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막막한 가운데 이런 돌봄 포럼을 통해 조금이나마 대안을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방 어느 곳에나 있는 교회 등의 종교시설을 통해 돌봄 시설로 활용한다면 저출생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들,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은다면 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와 시골의 모든 마을마다 행복한 출생이 늘어나고 모든 지역의 구성원들이 함께 아이 돌봄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를 소망하며 환영의 글을 남깁니다.

2023. 7. 6

## 격려사



**김창진** 목사  
(영주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영주동산교회)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영주시기독교연합회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개선되고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지 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뉴스에 출산의 가치를 폄하하며, 출산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익명의 독자 투고가 올라오는 등 젊은 세대들의 비혼, 비출산을 부채질하는 언론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관, 언론 등 각계각층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심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는 경제활동 인구가 자녀 출산 후,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양질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사회 저변에 출산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확산 되면서 출산율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급감하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귀농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타시도와 차별된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당국과 시민들이 함께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정책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개발되어 정책 입안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아이들을 돌보는 경험이 많은 교회에서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교회들이 좋은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돌봄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우리지역의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돌봄 포럼을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2023. 7. 6.

## 축사



**박남서** 영주시장

---

어느덧 2023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푸르른 녹음이 우거져가는 7월 좋은 날에 아동친화도시 영주에서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사회 아동돌봄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주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 출생아 수는 341명으로 2015년 654명에 대비하여 48%가 감소되었습니다.

미래세대의 중심이 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절실한 사회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힘을 모아 현재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영주시는 임신·출산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 등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지역 사회와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이 연계되어 아동 돌봄에 대한 좋은 논의가 진행되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6.

#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 사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토론 ①]**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역임)

**[토론 ②]** 옥경원 대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토론 ③]** 정예용 과장 (CTS다음세대운동본부)

Q & A 토크쇼



# 02



[토론 ①]

#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안광현** 교수

- 지속가능연구원장 / 지방자치아카데미원장
- 전)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 전) 대통령직속 TFT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
- 전) 서울시 공익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 전) (사)한국다문화협회 부회장을 역임
-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MATS / 송실대학교 행정학 박사



#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 저출생대책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세미나 -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 1. 시작하는 말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30대  
미혼을?





##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인구비중?

• 2021년 기준

49.6%

50.4%

-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중 89곳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 지방소멸의 의미?

“늙고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있는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지역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의 핵심은  
“**돌봄의 소멸**”

## 지방대학의 위기!

Why?

“남쪽 벚꽃이 피는 순서로 지방대학 소멸”



## 2. 저출생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 1) 저출생의 원인

- |             |                     |
|-------------|---------------------|
| 1. 높은 미혼율   | 2. 전쟁보다 더한 경쟁       |
| 3. 돌봄과 양육문제 | 4. 경제적 문제           |
| 5. 가치관의 변화  | 6. 성차별적 구조와 여성 경력단절 |

### 2) 정부의 대응

- 2022년 저출생 예산 59조 원.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 다수
- 보육 등 직접적인 지원책 '가족 분야' 예산 19조 원 불과
- 중구난방 예산 정비, 직접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

## 3. 지역소멸 현황

### 1) 지역 인구 감소

-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인구 감소  
경북(1만 6,500명), 부산(1만 3,600명), 경남(1만 3,400명),  
전남(1만 3,000명) **감소**
-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  
출생아보다 사망자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
-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 감소한 시·군·구  
**60여 곳(26%)에 달함**

### 3. 지역소멸 현황

#### 2) 지방대학소멸과 지역소멸

-전국 대학 평균 신입생 충원율

**2022년 87.6%,**

2012년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8만4,578명  
에서 2022년 8만7,072명으로 2,494명 증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의 원인

**수도권 대학에 비해 취업에서의 어려움**

### 3. 지역소멸 현황

#### 3) 돌봄 사각지대 발생과 지역 붕괴

- **어린이집 : 매년 1,900곳 사라짐**

2017년 4만238곳 어린이집 ( 2022년 8월 현재 )

3만 1,099곳으로 4년 8개월 동안 9,139곳 줄었음

#### 4) 소멸위험지역

- 소멸위험지역 : 전체 시군구의 49.6% (113개,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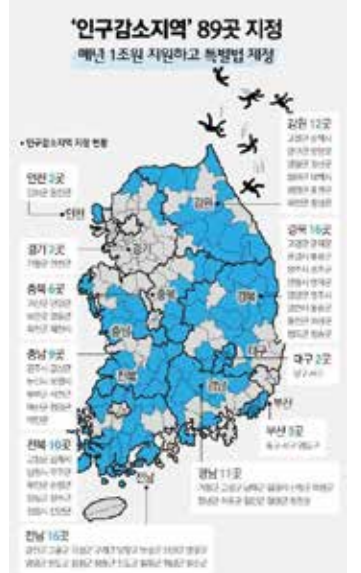
- 소멸위험지수 : 0.2 ~ 0.5 미만 '소멸위험진입지역' 68곳,

- 소멸위험지수 : 0.2 미만 '소멸고위험지역' 45곳

### 3. 지역소멸 현황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리스크 증가

-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 소멸위험지역 분류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전체인구,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 4. 저출생 정책평가와 외국사례 비교

#### 1) 저출생 정부정책의 문제점

- (1) 비효율적인 예산활용
- (2)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된 경제적 불확실성
- (3) 사회구조적 대응 미흡과 인식 변화의 한계

#### 2) 외국의 대응 정책

- 프랑스를 포함한 선진국의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2000년대에 들어 정비례로 바뀜.
- 제도와 인식이 개선되면서 일하는 여성의 숫자와 아이를 낳는 비율이 함께 올라감.

## 5. 저출생 정책방안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 1) 저출생 정책방안

- (1) 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 (2) 전문조직과 전문가 양성
- (3) 섬세한 소규모 사업들
- (4) 저출생 기본정책의 내실화
- (5) 가족지원의 확대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
  - ①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화
  - ② 아동수당 지급대상 17세까지 확대

## 5. 저출생 정책방안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 1) 저출생 정책방안

- (6) 해외 정책의 도입
  - ① 프랑스 : 자녀수에 따라 세금 차등 부과
  - ② 스웨덴 : 아동 단위의 가족정책과 젠더정책·고용 정책 명시화
  - ③ 일본 : 일·양육의 兩立과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증시
  - ④ 싱가포르 : 가족 지원과 일·가족 兩立 지원 추진
  - ⑤ 헝가리 :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

## 5. 저출생 정책방안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 2)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 (1) 지방자치단체 돌봄정책

- 지역 간 인구쟁탈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
- 지역 간 인구경쟁은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
- 돌봄의 국가책임을 지역책임으로 구체화하면 효과가 더 클 것
- 돌봄 시범도시 시행

#### (2) 지역의 균형발전 개혁

#### (3) 양육 지원 정책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구조 측면 - 시설 공급 측면

#### (4) 지방소멸대응기금

#### (5) 출산장려운동과 종교단체 영유아돌봄 서비스

### 3) 저출생 문제 해결 성공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6.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

- 지역의 일자리 창출, 특히 젊은 여성(결혼연령층)의 일자리 해결
- 교회 및 종교시설 내 돌봄 서비스 확대할 걸림돌 해결
- **사회적인 합의 도출 및 관련 법규개선과 시설비 지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필요**
- 지역의 교회와 지방자치단체 상생 위해 협력 공동 육아, 어린이교육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돌봄 실시**
- **저출생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문제라는 인식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 운동으로 발전 필요**
- 인구소멸, 지역소멸, 국가소멸의 위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출생 장려 운동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함께 동참하여 위기극복**



[토론 ②]

# 지역사회 돌봄 현안 및 지역교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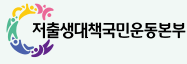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 한국중앙교회 국내선교목사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경기복지재단 이사
- 사회적협동조합숲과나무 이사장
- 전)송실사이버대학교, KOICA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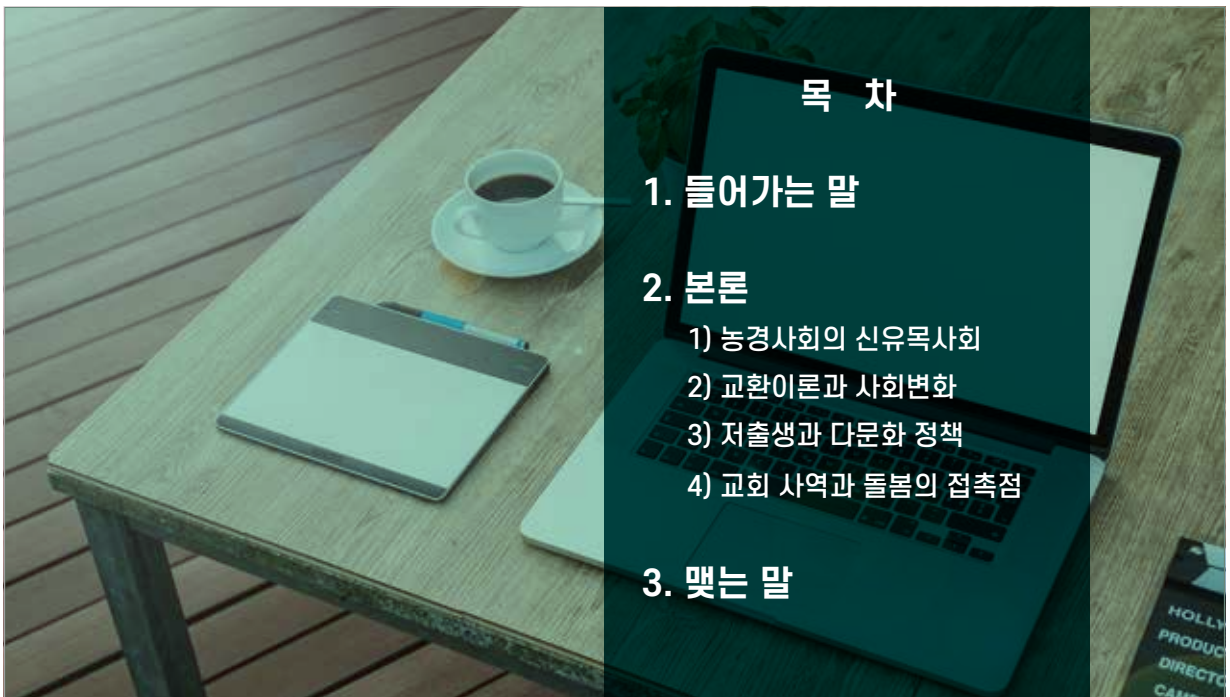
행복한 돌봄 든든한 미래

# 저출생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 Briefing

옥경원 대표

한국중앙교회 국내선교목사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경기복지재단 이사 / 사회적협동조합숲과나무 이사장 /  
전)송실사이버대학교, KOICA 교수



1. 들어가는 말

저출생 관련 키워드

집 값, 일\_가정 양립, 돌봄교실, 일자리, 고령화, 결혼기피, 노동력 부족, 보육시설, 교육비, 경제적 불안정, 여성의 사회진출, 경제 위축, 육아휴직

**돌봄 정책**

2. 본론

문제 제기



농경사회(정착사회)

- 농사를 위한 일손이 필요 (남아 선호, 여아 낙태, 이혼)
- 가부장적 대가족 사회 (나이 많은 남성 존중)
- 여성의 권리 배제 (독박육아, 집사람, 아내)  
대가족 사회에서의 집안 일은 어머니가 했다.
- 인구증가
- 안정적인 정착생활과 계층화된 사회



신유목사회(이동사회)

- 전문성과 정보기술 기반 경제활동 (가상 세계 이동)
- 수평적 개인주의 사회 (소유권, 사회적 지위가 주도)
- 여성의 권리 상승 (고학력, 여권신장, 유리천장 파괴)  
핵가족 사회에서 현재는 1인 가구가 전국 인구의 1/3
- 인구감소에서 인구 절벽으로
- 자유로운 이동과 누구나 평등한 사회

2. 본론

문제 제기



농경사회(정착사회)

**육아와 돌봄 : 여성과 가족의 책임**

- 남성은 가장,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부양 받는 존재로 인식
- 여성은 교육, 취업, 사회참여 제한
- 여성은 소득, 재산, 정치적 권력도 적음



신유목사회(이동사회)

**육아와 돌봄 : 사회와 공동의 책임**

-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 (동등한 지위)
- 평등한 사회는 여성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 교육, 취업 동등하게 소유
- 여성은 소득, 재산, 정치적 권력도 소유

2. 본론

문제 제기



농경사회(정착사회)

**힘쓰는 노동력이 존중 받는 사회**

- 남성의 지위가 문화적으로 존중
- 남아 출생이 많을수록 유복하다 인식
- **부계사회** (일반적으로)



신유목사회(이동사회)

**지식체계와 전문성이 존중 받는 사회**

- 평등사회 과도기적 문화적 충돌 (세대 간 갈등)
- 여성에게 내어주는 남성들의 상대적 일자리
- 전문성과 관계성이 중요한 시대
- **모계사회** (일반적으로)

2. 본론

문제 제기

재난적  
초저출생

◆ 선진국일수록 저출산 고령화 심화

- 1.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의 원인
  - 2020년 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21.7명
  - 2030년 38.5명 (10년 새 16.8명 증가 전망 \_ 인구 320만 2천 명)
- 2. 한국은 '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최저를 기록  
정부 시책의 큰 줄기 변화 불가피  
(‘20년 이전 : 출산장려정책, ‘2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 잘 키우는 환경 구축으로 패러다임 전환)
- 3. 독일의 긴급조치 (전 메르켈 총리, 2015년)  
난민정책 단행 (위기에 있는 국가인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수용하는 것이 유럽사회의 불안 요인이 아닌 기회로 전환)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20% 감소, 노동인구 30% 감소 관측)에 대해 일관된 신념으로 대처.)  
- 유럽경제전망보고서는 2015년 난민 유입으로 유럽경제에 GDP가 0.2~0.3% 증대되었다고 보고.

2. 본론

문제 제기

◆ ~~인구론 (토머스 맬서스, 18C)~~

~~“산업혁명으로 인구증가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인데 식량 생산은 제한적이고 빈곤이 자연법칙의 결과다.”~~



**“인구 증가는 경제를 촉진시키고 혁신의 가능성도 커진다.”**  
(사이먼 쿠즈네츠 (Simon Kuznets) GDP개념 도입, 러시아 출신 미국)

◆ **인구 감소는 축복이다?**

(왕평, 캘리포니아대 사회학과)

고령화를 빼 놓고……

2. 본론

문제 제기

◆ 인구 감소의 나비효과

- 1. 국민연금 납부액 증가
- 2. 은퇴 후 수령액 감소
- 3. 연금 수령 연령 지연
- 4. 정부재정 악화로 인한 복지정책 중단 도미노
- 5. 사회SOC의 노후화
- 6. 버려진 지방 주택과 구매력 잃은 공실 발생
- 7. 구매력 약화는 경제, 문화, 사회적 활력 저하
- 8. 교육기관들의 통폐합과 일자리 감소
- 9.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 감소
- 10.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 11. 사회의 다양성 감소와 세대 간 갈등 증대
- 12. 의료체계 악화
- 13. 국력 약화



2. 본론

문제 제기

◆ 저출생 원인 중 교환이론

조지 호만스

인간의 상호작용을 교환의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한다. 자신이 얻는 이익이 있다면 인간은 상호작용을 계속할 것이고 반대로,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이익이 적으면, 인간은 상호작용을 중단합니다.

여성의 상향욕구

대부분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상향욕구가 강하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교육, 취업, 재산을 축적하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개인,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절대적이지는 않음을 명시)



2. 본론

문제 제기

여성의 상향욕구

대부분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상향욕구가 강하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교육, 취업, 재산을 축적하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개인,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절대적이지는 않음을 명시)

- 1. 여성의 사회진출
- 2. 여성의 고학력
- 3. 여성의 사회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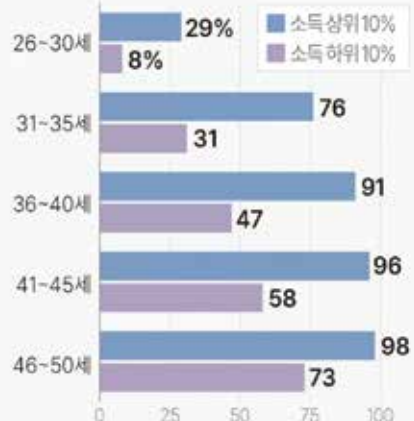
신유목사회

농경사회

상향욕구

남성 소득수준별 혼인비율

2017년~2019년 기준  
한번이라도 결혼한 적 있는 비율



연합뉴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 본론

문제 제기

여성의 상향욕구

대부분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상향욕구가 강하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교육, 취업, 재산을 축적하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개인,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절대적이지는 않음을 명시)

한국 남성에 대한  
상향 욕구  
다문화 정책이  
대안으로 부각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최근 2018년~2022년 5년 간  
이용 아동 5천 명 이상 증가

◆ 한국의 다문화 정책

- 1. 결혼 이민자 정책
-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 3. 다문화 교육 정책
- 4. 다문화 인식 개선 정책

3. 결론

대안 제시

◆ 한국의 다문화 정책

1. 결혼 이민자 정책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3. 다문화 교육 정책
4. 다문화 인식 개선 정책

◆ 교회와의 접촉점

돌봄기관의 법인 위수탁 사업	민간 돌봄기관의 법인 직영	교회 내 민간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시군구)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어울림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회관	지역아동센터 (법인)	지역아동센터 (개인)
예) 곡성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 아동이 70% / 예천의 경우 대개 다문화는 베트남인. 선교지로 찾아가는 선교 만큼이나 찾아 들어온 이민자, 난민, 외국인들에 대한 교회의 마을 돌봄을 통한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4. 맺는 말

나는 이방인에게 빛진 자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불의를 행한 자가 될 것임이로다.

롬1:14~15 / 사도바울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이방인은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토론 ③]

# 저출생 시대 지역사회 교회의 아동돌봄 역할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정예용** 과장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복지전공
  - 전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현 CTS다음세대지원센터 과장





# 저출생 시대 지역사회 교회의 아동돌봄 역할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정예용 과장

## 공적돌봄 체계 - 온종일 돌봄

**< 0~12세 공적돌봄체계 >**

연령 시간	영유아(315만 명)						초등학생(267만 명)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시	국가책임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유치원(215만 명)</li> <li>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li> <li>아동수당, 양육수당</li> </ul>						초등책임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정규수업(9시~13시·15시)</li> </ul>											
13시~19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돌봄교실 (24만 명)</li> </ul>						사각지대					
19시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아동센터 등(9만 명)					

(자료: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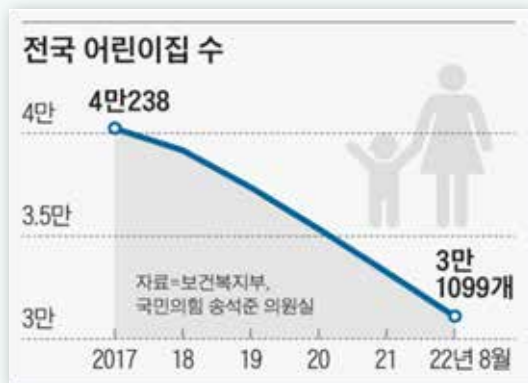
## 공적돌봄 체계 - 돌봄사업의 불일치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대상	초등 1~6학년	만18세 미만의 초등·중학생	만 6~12세	초등 4~ 중등 3학년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법적 근거	법적근거없음 (교육부 고시로 운영)	아동복지법 제50, 52조	아동복지법 제44조 의 2 사회보장기본법 제5, 6조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제8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선정 기준	학교 여건에 따라 (1~3학년 중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80%이상	소득수준 무관	우선지원대상 : 저소득층, 한부모 등	맞벌이· 비맞벌이 가정 모두

CTSD다음세대지원센터

## 지역사회 어린이집의 위기

어린이집이 **매년 1900곳이 사라진다...**



2017년 4만238곳이던 어린이집  
2022년 8월 현재 3만 1099곳으로  
**4년 8개월 동안 9139곳 감소**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는 원인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기조!!**

**전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446곳 → 554곳으로 증가('17 → '21)

CTSD다음세대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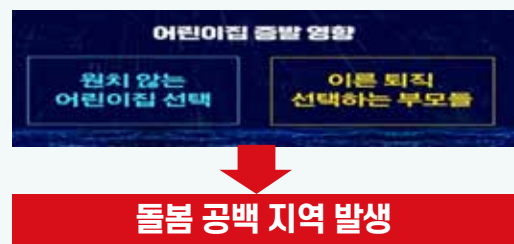
## 어린이집 위기 - 돌봄공백초래

어린이집이 사라진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어린이집 줄폐업

정부는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지만 역부족



CTSD다음세대지원센터

## 초등돌봄 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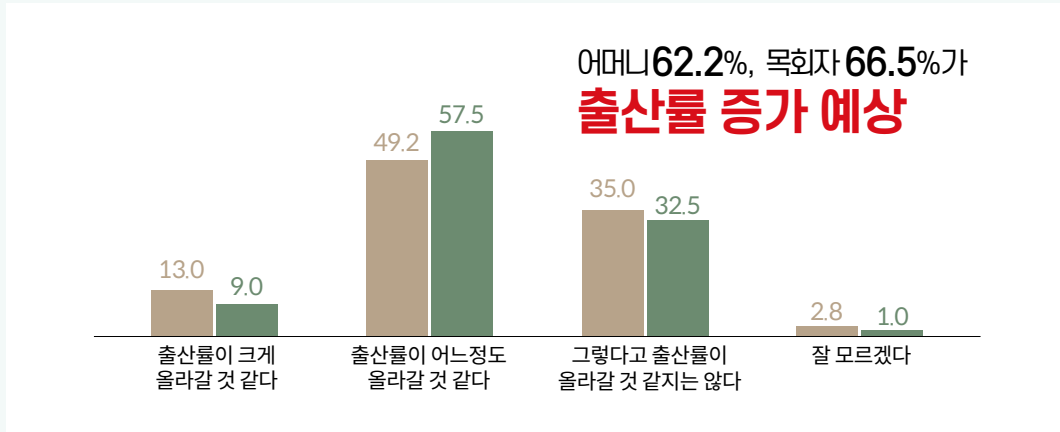


초등학생 학부모 '공포의 3월'  
초등 1학년 빠르면 오후 1시 하교  
2~4월 육아휴직·단축근무자 몰려  
방과 후·돌봄교실 탈락뎀 퇴사 고민

서울신문(2023. 3. 28 일자)

CTSD다음세대지원센터

## 믿을 만한 보육 시설 확충 시...



CTS다음세대지원센터

## 교회형 돌봄 유형

### ▪ 영유아 돌봄

- 어린이집, 유치원
- 공동육아나눔터

### ▪ 그외

- 아기학교 프로그램
- 실내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 ▪ 초등돌봄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마을학교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토요 문화프로그램

CTS다음세대지원센터

## 교회형 돌봄 사례 - 서울 광현교회

- 국공립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지역청소년센터
- 아동청소년 대상
  - 문화프로그램
  - 동아리 활동 운영



CTSD다음세대지원센터

## 교회형 돌봄 사례 - 인천 주안장로교회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 다함께돌봄센터
- 아이돌보미서비스



CTSD다음세대지원센터



## 교회형 돌봄 사례 - 김포 두란노 교회

- 아기학교 프로그램
- 실내놀이터
- 지역사회 어린이날 축제



CTSD다음세대지원센터

## 교회형 돌봄 사례 - 안동 서부 교회

- 다함께돌봄센터
- 실내놀이터
- 장난감 도서관



CTSD다음세대지원센터

## 교회형 돌봄 사례 - 의성 탑리 교회

- 지역아동센터 공간 제공
- 마을학교 운영
- 마을축제 주도



CTS다음세대지원센터

## 교회에 드리는 제안

- 교회형 돌봄사업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헌신하는 차원으로 접근
  -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교회의 공적 책임 역할을 다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자!!
  -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 이를 반영하여 필요가 적절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 대상 돌봄 필요  
다문화 가족 안에서 아동 돌봄

CTS다음세대지원센터

## 교회에 드리는 제안

- 먼저, 지역사회를 섬김에 있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 모색
  - 자치구, 정부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돌봄 기능의 강화 필요
  - 단순 돌봄이 아닌 가정사역 차원의 돌봄사역으로 담아내는 부분 필요
  - 부모 교육, 상담

CTS다음세대지원센터

감사합니다



#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발행일 2023년 7월 6일

발행인 감경철

발행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주)기독교텔레비전

제작부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TEL \_ 02.6333.2502 happyborn.kr

디자인·인쇄 우성프린테크 TEL \_ 02.2278.9260

© 2023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경우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책자의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